

제1회 우수편집도서상 심사평

‘우수편집도서상’은 “기존 출판 상들이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출판물의 내용, 의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편집의 본령인 교정 교열까지 뛰어난 도서”에 주는 상이다. 상을 받을 만큼 편집이 잘된 책은 당연히 교정 교열이 뛰어난 책일 터이지만, 편집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교정 교열의 중요성이 그동안 충분히 대접받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모든 출판편집인이 공감하는 바라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특히 예심에서는 교정 교열 상태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심에 올라온 8권의 책에서조차 교정 교열의 문제가 간간히 발견된 점은 이 책들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 좀 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경고로 읽혔다.

58개사 105종(성인 78종, 아동 청소년 27종)의 응모작 가운데 예심을 거쳐 올라온 8종은 『불화 그리고 불온한 시대의 철학』(길), 『사통(史通)』(역사비평사),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한길사) 등 학술서 3종, 『내 아이가 사랑한 학교』(산티), 『더 서울』(북노마드), 『오래된 서울』(동하) 등 대중교양서 3종, 『비정규씨, 출근하세요?』(사계절), 『청소년을 위한 소설심리클럽 시리즈—테마 2: 성스러운 그녀』(우리학교) 등 청소년교양서 2종이었다. 이미 예심을 통해 검증된 책들인 만큼 본심에서는 단점을 찾아내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가진 책을 고르는 포지티브 방식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심 위원들은 ‘종합예술’인 편집의 완성도와 참신성에 비중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기획 의도와 주제를 잘 구현했는가, 일러두기·주석·색인 등 각종 편집 요소를 구비하고 적절히 구사했는가,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는 잘 이루어졌는가, 출판 편집의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적 요소가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8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래된 서울』, 『사통』, 『내 아이가 사랑한 학교』를 최종 수상후보로 삼았다. 이 가운데 『오래된 서울』이 여러모로 위의 기준에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본심 위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사통』과 『내 아이가 사랑한 학교』 가운데서 나머지 한 종을 결정하는데는 다소 고심이 있었다. 논의 끝에, 『내 아이가 사랑한 학교』의 담담한 편집이 내용을 잘 살려내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방대한 분량의 어려운 번역서를 최대한 친절하게 다듬어 독자에게 보여주려는 『사통』의 집요함과 성실함에 좀 더 무게를 실게 되었다. 남은 본심 대상작 가운데 『더 서울』은 화려하고 다양한 편집기술이 눈을 끌었으나 독자에게는 좀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화 그리고 불온한 시대의 철학』과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은 출판사의 학술지 편집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장점은 엿보이지 않은 점 때문에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획력이 돋보이는 두 청소년물 『비정규씨, 출근하세요?』와 『성스러운 그녀』는 문제의식에 비해 교정의 정확성을 비롯한 편집의 수준은 미흡하다고 여겨졌다.

‘우수편집도서상’이 출판의 기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집자들의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계기

가 되기를 빈다.

『오래된 서울』은 저자들의 오래된 기획과 노고가 돋보이는 책이다. 저자들은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지워지고 잊힌 역사의 자취들을 찾아 서로 엮어 ‘오래된 서울’을 복원했다. 서울의 역사를 600년이 아닌 900년으로 확장하고 그동안 서울에서 살았던 양반과 중인, 친일파와 월북자, 남성과 여성 등을 모두 되살려 이어준다. 이러한 복원 작업에는 오랜 답사와 더불어 사진, 삽화, 옛 그림, 옛 지도 등 가능한 모든 자료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물론 저자들의 공이지만, 그들의 치밀하고 방대한 기획과 저작은 정교한 편집의 도움 없이는 결코 지금과 같이 정돈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선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품격 있는 짜임새, 책의 성격에 어울리는 문체를 잘 살리고 읽기 편하게 다듬어진 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적절하게 배치된 품격 있는 도판들 등 곳곳에서 편집자의 노고가 엿보인다. 도판 출처, 참고자료, 색인 등도 잘 갖추었다. 옛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그려졌을 위치를 현재의 지도에서 추측해보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해를 보라. 지적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시도를 해 본 편집자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품이 들면서도 완성도 있게 해내기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오래된 서울』 편집진의 ‘오래된’ 분투에 박수를 보낸다.

『사통』은 1048쪽에 이르는 방대한 고대 중국의 사론서이다. 웬만한 사람은 그 내용은커녕 제목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이 책은 편집은커녕 한 번 읽어나가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을 방대함과 난해함을 자랑한다. 그런 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은 물론 역자의 몫이었다. 역자는 역사학자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원고를 다듬어 역자보다 몇 배, 몇십 배 이 책이 생소할 독자에게 읽어볼 엄두나마 내볼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통』의 편집자들은 그 어려운 과제를 해냈을 뿐 아니라 썩 잘해냈다. 일반 독자들이 책을 읽어나갈 때 어려워할 낯선 용어나 고유명사가 나올 때마다 주석을 붙여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장이나 절의 끝에 몰아서 후주 처리를 하면 훨씬 힘이 덜 들었을 것이고, 이런 종류의 학술서적에서 그렇게 한다고 흠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 독자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한 것은 편집자가 역자만큼이나 이 책에 애착을 갖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손에 쥐여주고 싶어 했음을 보여준다. 본문 편집도 깔끔하고, 통상의 학술서처럼 뻑뻑하지 않고 시원스럽게 편집한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색인도 잘 갖춰져 있으며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 뜯어질 만큼 장정도 훌륭하다. 이 책의 부제로 내건 ‘오천년 중국사에서 가장 탁월한 역사서’라는 말이 적어도 편집자에게는 걸치레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